

나의 建築物가 東方平地에 있어서 오늘 모두 田畝으로 변하였으니 基壇石으로 보이는 石片만이 그 위에 散亂되고 있다. 지난 五月의 첫조사가 上記 十二支 金堂址를 中心삼기는 하였으나 그 期間을 통하여 자주 現地에서 논의된 것은 도리어 이 遺址에 대한 것이었다. 그것은 또한 三國遺事에 보이는 義湘法師의 履空旋塔의 記事와의 관련에서인데 法師가 皇福寺에 住利할 때 徒衆과 더불어 虛空을 밟고 繞塔하였다는 그 塔에 관한 문제이다. 이 記事는 法師 자신이 「世人見此 必以爲怪 不可以訓世」라고 말하였다는 것과 같이 곧 믿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 寺址에서 現存하는 後建된 石塔이 아닌 아마도 高裕燮先生^③이 추정한 바와 같은 木塔의 存在를 따로 推定하여야 마땅하다는 생각에서이다. 바꾸어 말한다면 傳皇福寺 初創當時의 主要한 堂塔伽藍을 이곳에서 따로 推定하여야겠다는 것이다. 現存 石塔을 義湘의 繞塔記事와 관련시켜 考察하려는 것은(梅原末治博士^④는 部落民이 오늘 이 石塔을 春秋로 도는 風習이 있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비록 法師가 이 때까지 高齡으로 存命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正當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의 一次조사를 통하여 뚜렷한 結論이 이루어지지 않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새로운 考察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1) 現存石塔은 이 寺院의 初創과는 直接關係가 없는 신라統一即後의 新羅皇室의 願塔인데 山麓에 偏在하는 그 占定位置에서도 그러하다.
(2) 十二支神像 八軀의 配置는 이 建築物에서 밝혀진 歷代重建에 따르는 變形을 보이나 그 造成年代는 신라統初로 推定되었다. 이 같은 사실은 신라十二支彫像의 發生이 陵墓護石에 앞서서 또는 거의 同代에 佛教伽藍에 있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推定케 하였다.
(3) 既往의 注目은 地表의 오직 塔像에만 局限되었으나 이 寺院의 中心은 도리어 그 東方遺址에서 찾아야 하겠다. 그를 위한 今後의 조사는 이 寺院의 創建年代와 伽藍配置에 대하여 전혀 새로운 解明을 期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의 寺域實測에서는 周圍의 王陵과의 관계도 새로운 注目을 받았다.
(4) 今次 조사된 十二支像所在 建築物는 數次의 重建사실을 보여 주었

으며 下層에서는 三國期瓦類의 出土가 있어 그 初創年代의 溯及됨을 알 수 있었다. 이 외에 三層石塔 直北에서 새로운 建築物의 存在가 밝혀진 것은 調査者에게도 豫定外의 새로운 사실로서 주목되었다.
(5) 十二支建築物 南方道路路邊에 東西로 埋沒되었던 龜趺二座의 發掘과 兩龜趺間과 民家에서 收拾된 若干의 碑片은 既往에 收拾된 碑片(慶州博物館所藏)과 一致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조사에서 더 많은 兩碑의 碑片과 이 寺址와의 關係가 究明되어야 할 것이다.

註

- ① 大坂金太郎·掛陵考(朝鮮學報)39、40輯 一九六六年 四月)
- ② 이 같은 見解는 일찌기 다음 兩氏에 의하여 表明된 바 있다.
高裕燮·朝鮮塔婆의 樣式變遷(東方學志) 一輯)
李弘植·慶州狼山東麓三層石塔內發見品(韓國古文化論叢)所收) 이 論文 末尾에는 「所謂 皇福寺問題」라는 一章이 있어 이 寺址에 대한 여러 見解와 出土遺物 등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 바 皇福寺로서의 推定은 保留되고 있다.
- ③ 高裕燮·上揭 論文
- ④ 梅原末治·韓國慶州皇福寺塔發見의 舍利容器(美術研究) 一五六號 一九五〇年)

堤川發見 乙巳銘銅鍾

崔 淳 雨

一九六六年 六月二十四日 忠北 堤川郡 堤川邑 남천동 六四番地 白富榮氏로부터 國立博物館에 提出된 在銘高麗銅鍾의 新例를 概說해 두고자 한다. 發見者 白富榮氏의 말에 따르면 이 銅鍾은 六、七年前에 堤川地 區山野에서 標本用鳥類를 採集中 發見한 古鐵로 入手해서 끌고다니는 것을 發見 이를 入手해서 保管中이던 것이라고 하나 이 鍾의 保存상태로 보아서 그 말의 信實性은 희박한 것으로 짐작되었다. 따라서 出土地와 出土日時는 분명히 알 수 없으며 다만 堤川地區에서 오래지 않은 過



字의 銘文이 飛天과 口帶文 사이에 刻銘되어 있어서 注目되었다.

知樞密院事戶部尙書上將軍曹
妻河源郡夫人等

祝

聖壽天長國大民安及法界衆生

離苦得樂愿以金鍾

一副入重渠拾斤造成

別將同正韓正

棟梁智儒同心

菩薩之用慈山

乙巳九月十七日造

이 銘文에 따르면 知樞密院事 戶部尙書上將軍職을 歷任한 曹某라는 사람의 妻 河源郡夫人 등이 國泰民安과 衆生の 濟度를 發願하기 爲해서 乙巳年에 造成했다는 內容이 되는데 高麗史를 들추어 보면 曹氏中에 이 比定할만한 閱歷을 지닌 人物은 曹元正이가 있을 뿐이다. ① 그는 明宗十一年에 工部尙書가 되었고 同王十三年에 知樞密院事에서 樞密院副使로 昇進되었으며 同王十七年 七月에는 謀亂伏誅되었다. 이보다 앞서 曹元正은 鄭仲夫亂 때의 勲功으로 郎將, 將軍으로 歷選된 바 있음으로 비록 戶部尙書의 閱歷이 記錄에 안남아 있다 해도 明宗十三年으로 부터 十

去에 出土된 것이라 는 짐작이 갈 뿐이다. 이 鍾은 大體로 身長에 比해서 豐滿 形을 지닌 中形에 가까운 鍾으로서 別項과 같이 韓國梵鍾의 通式을 비교적 잘 갖추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十行 七七

七年 七月에 이르는 사이에 어느時機에 戶部尙書도 歷任했을 可能性은 足히 있었음직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以上과 같이 曹氏를 曹元正에 比定해볼 경우 乙巳年은 明宗十五年(一一八五)에 該當되나 樣式上의 問題도 있으므로 이같은 比定은 保留하여 둔다.

이 鍾의 各部樣式을 살펴보면 우선 上帶文은 上下界線을 連珠文으로 둘러 文間帶에 雷文과 雲頭文을 交互 陽鑄한 것이며 乳帶文은 蓮唐草文 口帶文은 菊唐草文이 各其 陽鑄되어 있다. 雷文과 雲頭文을 鍾帶文에 이렇게 섞어 쓴 例로는 三川寺골 出土銅鍾^② 口帶文에서 그 例를 볼 수 있는데 이 경우는 口帶文全體가 雷文帶로 되어 있는 속에 三個所의 方格 안에만 雲頭文을 넣은 것이다. 飛天文은 四個所의 乳廓사이의 胴部中下部位의 雲座위에 合掌端座한 菩薩形을 陽鑄했으며 撞座는 各乳廓直下의 鍾身 中下部位에 復葉蓮華文을 陽鑄한 것이다. 이 蓮華文의 蓮房이 六瓣花形으로 된 것이 特色이며 이러한 撞座의 例는 至大四年銘鍾^③에서 볼 수 있고 正豐二年銘小鍾^④의 경우도 그러하다. 鍾肩에 둘러세운 劍頭形立華에는 仰蓮위에 菊輪 하나씩을 配한 圖文을 個個에 陽鑄했으며 甬筒은 上帶文과 같은 雲頭와 雷文帶를 三段으로 둘러 陽鑄하고 그 頂部에는 五珠를 장식했으나 그 하나는 缺落되어 있다. 龍鈕彫刻은 鍾全體의 表現技法에 比하면 매우 雄渾한 솜씨를 보였으며 특히 四瓜龍足에 매친 힘이나 늘게 突出되어 있는 두 눈의 特出한 表現等은 鍾身に 比해 越等の 差가 있다고 보여진다. 鍾의 頂部에는 傷痕으로 보여지는 丸孔이 十五個所나 있으며 鍾胴에도 鑄造 때의 실수로 보이는 작고 큰 구멍이 몇 군데 둘러져 있다. 鍾의 全高는 六一·三cm 身高는 五〇·三cm 口徑 四四cm 두께는 鍾口에서 三·八cm이다.

註

- ① 高麗史世家 明宗十一年十二月條
- 高麗史世家 明宗十三年十二月條
- 高麗史世家 明宗十七年七月條
- ② 鄭良謨 「三川寺골出土銅鍾」 考古美術九卷一號, 一九六八, 一月
- ③ 拙稿 「至大四年銘鍾」 考古美術三卷七號 一九六二, 七月
- ④ 鄭永鎬 「正豐二年銘小鍾」 考古美術二卷十一號 一九六一, 十一月